

Kanazawa

2026년 8월 7일



Néon Noir 유니버스의 세 번째 싱글. 비와 연기, 반사광이 곧 사라질 한 순간의 재료가 되고, 목소리는 그 순간을 붙잡아 노래 안에 남긴다.

아티스트	FRED
제목	Kanazawa
형식	Single
공식 발매	2026년 8월 7일
앨범 / 유니버스	Néon Noir
재생 시간	3 min 58.8 s
스타일	Nocturnal dreamwave / electronica-downtempo
레이블	FRED Music
프레스 문의	presse@fred-music.com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을 노래가 구해 낸다. 일본은 장소이고, 진짜 주제는 사라지는 순간이다.



싱글 소개

Kanazawa에서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가 내리고, 담배 한 개비가 타 들어가고, 자전거가 거리를 지난다. 한 커플이 처마 아래에서 웃다가 사라진다. Blue Neon의 유리창 너머로 몇몇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웅덩이 속 간판의 빛이 떨린다.

바로 그 지점에 이 곡이 있다. Kanazawa는 화려한 사건도, 일본의 업서 같은 이미지를 찾지 않는다. 도시는 배경일 뿐이고, 진짜 주제는 더 연약하다. 시간이 거의 즉시 지워 버리는 평범한 몇 분. Fred는 조금 더 밖에 남아 바라보고 듣고,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음악은 그 움직임을 과장하지 않는다. 밤의 드림웨이브, 대기적인 전자음악, 최소한의 박동, 부드러운 베이스, 신스 패드와 절제된 기타 질감이 친밀하고 정지된 듯한 시네마틱한 멜랑콜리를 만든다.

처음에는 그저 바라보는 일이다. 그러나 노래는 연기와 행인과 비를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남는 것은 하나다. 순간을 말로 옮기고, 목소리를 통과시키고, 흔적을 남기는 것.

곡의 움직임

바라보다

비, 간판, 우산, 소매에 닿는 차가움, 올라가는 연기.

이해하다

모든 것은 거의 즉시 사라지고 세상은 멈춰 세울 수 없다.

붙잡다

자전거, 처마 아래의 웃음, 오래된 슬픔, 흔들리는 빛.

구하다

목소리는 사라질 것을 거둔다. "Sauf ce que je sauve en chanson."



내일이면 잃어버릴 것

우리는 매일 보존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수백 개의 순간을 지나친다. 벽 위의 빛, 스쳐 들은 한 문장, 냄새, 침묵, 비 오는 거리. 몇 시간 뒤에는 이미 형태가 달라지고, 다음 날이면 파편으로만 남는다.

Kanazawa는 바로 그 평범한 소멸에서 출발한다. Fred는 세상을 얼려 두려 하지 않는다. 노래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연기는 흩어지고, 실루엣은 프레임 밖으로 사라지며, 반사광은 멀리다 풀어진다. 붙잡았다고 생각한 밤조차 아침에게 자리를 내준다.

하지만 망각에 대한 이 저항이 곡의 깊은 움직임を 만든다. 시간을 보존할 수 없다면 목소리 안에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후렴은 '말로 붙잡는 것'을 넘어 '노래로 구해 내는 것'에 도달한다.

이 생각은 FRED의 글쓰기 방식과도 연결된다. 많은 노래는 장면, 사람, 분노, 기억, 몇 초의 파편에서 시작된다. Kanazawa에서는 바로 그 글쓰기 방식 자체가 주제가 된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존재했다. 도시는 관광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다.

Néon Noir의 기억



싱글의 흐름에서 Kanazawa는 Néon Noir와 Solitude 뒤에 놓인다. Néon Noir가 움직임과 빛으로 향하는 전환을 열었다면, Solitude는 도시를 떠나 피난처이자 감옥이 될 수 있는 내면의 방으로 들어갔다.

Kanazawa는 세 번째 영역을 연다. 이제 밤은 싸우거나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 사라지기 전에 바라보는 대상이다. 앞선 곡들이 지나온 연약한 빛, 침묵, 인간의 존재, 바깥과 안의 경계를 거뒀들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Néon Noir의 기억이 된다.

Kanazawa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자매 버전으로도 존재한다. 비, Blue Neon, 담배, 유리창, 구해 낸 순간이라는 핵은 같지만, 각 언어가 서로 다른 호흡과 음악을 만든다. 같은 노래를 네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밤을 창가의 서로 다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FRED 소개

FRED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벨기에 출신 작가이자 독립 아티스트 Frédéric Frère의 음악 프로젝트다. 오랜 세월 축적된 글쓰기에서 출발해 텍스트, 기억, 분노, 인물과 삶의 파편을 노래와 시각적 세계로 옮긴다. 음악적 색채는 작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글과 목소리, 이미지,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선이 전체를 연결한다. 해외 버전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자매 작품'으로 만들어져, 곡의 중심을 잃지 않은 채 다른 언어와 문화 안에서 살아가도록 한다.

Kanazawa는 Néon Noir의 세 번째 싱글이다. 비와 침묵, 기억의 노래이며, 도시가 잃어버릴 것을 말이 노래 안에 남긴다.

핵심 메시지

- Néon Noir 유니버스의 세 번째 싱글, 2026년 8월 7일 발매.
- 검증된 마스터 길이 3분 58.8초.
- 방향: 밤의 드림웨이브 / 대기적인 전자음악 / electronica-downtempo.
- 일본은 장소이고, 진짜 주제는 사라지는 순간이다.
- 핵심 이미지: 비, Blue Neon, 유리창, 담배, 연기, 젖은 거리, 반사광, 유리 너머의 목소리.
- 세상을 멈추는 대신 사라지는 것을 노래의 기억으로 바꾼다.
- Néon Noir는 출구를 열고, Solitude는 방으로 들어가며, Kanazawa는 밤을 거둔다.
- 중심 문장: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을 노래가 구해 낸다.”
- 영어·한국어·일본어 자매 버전도 존재한다.

가사 발췌

Blue Neon, Kanazawa
Tout s'efface presque aussitôt
Comme la fumée entre mes doigts
Sauf ce que je sauve en chanson

발매 정보

제목: Kanazawa
공식 발매: 2026년 8월 7일
앨범 / 유니버스: Néon Noir
재생 시간: 3 min 58.8 s
레이블: FRED Music

공식 사이트: fred-music.com
프레스: presse@fred-music.com
듣기: Spotify, Apple Music, Amazon Music, YouTube
공식 SNS: Facebook, Instagram, YouTube, Threads